

退職후 설곳없는 일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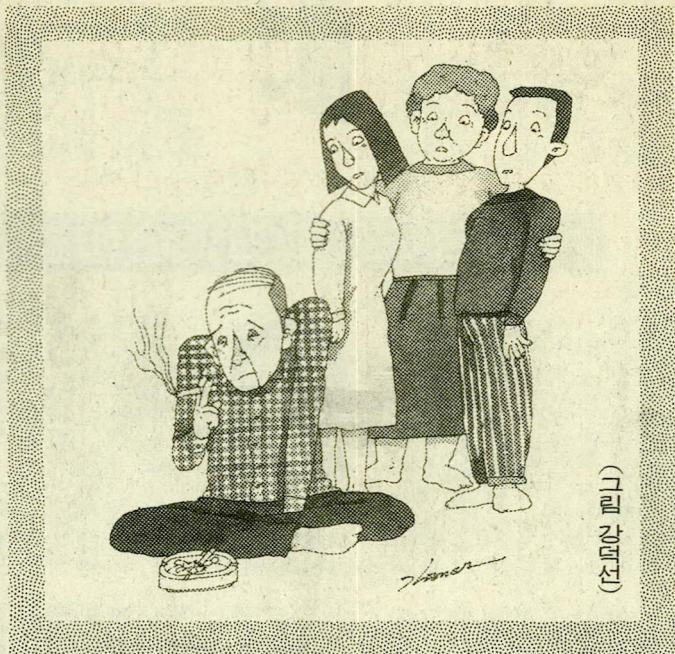
退職후 설곳없는 일벌레

아버지-남편 역할 제대로 못해 다들림

『모파상의 소설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있죠. 저는 요즘 정년퇴직하신 저의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의 일생을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바깥생활만 하시다가 요즘은 집에만 계시니까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부쩍 걸뉘어지신 거 같아요』

회사원 金廷植씨(29)는 아들 이전에 사회의 선배를 보는 후배의 심정으로 자신의 미래도 결국 저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울적해진다고 했다.

『한참 사회생활로 바쁠 때



는 집에서 며칠 폭 쉬었으면 하는게 소원이었는데 막상 쉴 때가 오니까 일없이 있는 게 무용지물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구는 자꾸 밖에 나다니라고 하는데 일도 없이 어딜 나가. 이럴줄 알았으면 이웃사람이라도 사



귀어 놓을 것을... 그런데 또 그럴 시간도 없었지 뭐』

『직장에 다닐 때는 집에 좀 일찍 들어오라고 그렇게 성화더니 이제는 내가 집에 있으니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애. 자식놈들도 내가 있으면 안방에 잘 오지도 않고 제업마만 불러내다

가 말한단 말야. 또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나서 가보면 마누라와 자식들이 뭔가 재미있게 말하다가 뚝 끊어지는 거야. 어색해서 「물 좀 나오」하고 돌아서면 영 서운해...』

정년퇴직을 한지 일이년 이 된 남성들이 털어놓는 「집에 들어왔은」심경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밀려났다」는 사회적인 상실감이 고 다른 하나는 「집에도 내 자리는 없구나」라는 소외감이다. 그리고 이들은 여지 없이 아내에 대해 「의존」과 「자격지심」을 동전의 양면으로 하는 감정을 안고있다.

지금껏 우리사회의 남성들은 일벌레처럼 살아왔다. 식민지 시대에서 벗어나자마자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후에는 복구에 힘을 쏟아야 했다. 60년대에는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산업역군이었고 70년대에는 조국 번영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중단없이 전진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아 이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도, 아내와 부부의 정을 쌓을 시간도 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남성들은 퇴직해서야 비로소 가정에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못했음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90년대의 남성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일벌레로 사회생활에만 헌신해온 아버지 세대의 삶을 비추어보며 가정과 사회의 균형감각을 스스로 익히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吳 淑 喜 (梨大여성학 강사)